



What's new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41 호 | 2019.12.30

딜로이트 안진, '국제조세' 강점 살린 '맞춤형' 세미나 큰 반향

김영필 파트너 등 국제조세 전문가들 실용정보 설명...외국법인 고객사 위한 '맞춤형' 세미나 호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0 월 30 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에서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이하 외국법인)의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조세 최근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기획자이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의 외국법인 세무 서비스 책임자인 스캇 올슨(Scott Oleson) 파트너는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지속적인 국제조세 분야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고객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스캇 올슨 파트너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연에 나선 김영필 파트너는 2019 세법개정(안) 중 외국법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세분야 중심 항목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 뒤를 이어 신승학 디렉터가 최근 관세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영수 파트너는 이전가격체제의 국제기준 반영을 위해 도입된 무형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무형자산 거래 시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인창 디렉터는 국세청에서 10 년 이상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동향과 세무조사 과정 중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외국계기업 임직원 '주식보상소득' 세무리스크 컨설팅 선도

국제주식분야 전문가들 실용정보 설명...실사례 바탕의 효과적인 세무관리 방안 제공으로 큰 호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1 월 8 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에서 외국계기업의 세무·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식보상소득관련 세무신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거주자의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제한조건부가상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 등 (이하 주식보상소득)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업 혹은 임직원이 주식보상소득에 관해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주식보상소득 관련 세금 신고·납부 방안으로 인한 고객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식보상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과 이를 위한 세무·인사 담당자의 역할과 의무 등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강연에 나선 권혁기 이사는 주식보상소득의 정의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주식보상소득 과세 점검 동향을 비롯 기업의 입장에서 준비해야할 사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그 뒤를 이어 왕성숙 이사가 주식보상소득의 종류와 신고의무, 신고 불이행 시의 가산세, 과태료 규정 등을 관련 법령과 함께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특히 퇴사자 및 해외관계사 진출자, 해외본사 주식매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 실무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기 이사가 주식보상소득 세무관리와 연계해 기업 인사담당부서의 역할과 의무는 물론 임직원을 위한 효과적인 세무관리 방안 실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포럼' 개최

국제은행연합회 BAFT 전문가 직접 강연... AI 활용, 효율적 업무프로세스 구축 등 사례 발표로 큰 호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복잡해지는 수출입 업무, 제재 리스크 확대 등 최근 무역금융거래와 관련한 이슈로 국내 금융회사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포럼에는 딜로이트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비롯해 금융 및 무역은행가 협회(이하 BAFT; The Bankers Association for Finance and Trade), 외국계 IT 기업 전문가 10 여 명이 직접 강연에 나서 글로벌 실무사례와 금융기관의 제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방한한 콜린 캠프(Colin Camp) 펠리칸 아시아태평양 시니어 디렉터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다량의 무역증빙서류 스캔본을 AI 시스템이 자동인식해 증빙서류간의 불일치 정보를 추출하는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딜로이트 안진과 BAFT, 외국계 IT 기업의 전문가들이 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사례, 고객 및 거래확인(Due Diligence) 방안 모범사례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해외 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객 및 거래확인(Due Diligence)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관세청 무역사기 가이드라인과 해외 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각 금융사에 맞는 무역거래 모니터링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제재와 관련해 금융사 내부 무역 및 금융제재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책과 금융제재 대상 건에 대한 검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과 패널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9.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